

정보화마을사업 추진에서 주민참여의 확대가능성 모색 방안 연구

박 영 민*, 서 진 완**

요약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기준으로 각 주체별 현재와 향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추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 등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 중심이라는 사업의 방향성과는 상이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진 및 운영주체에 대한 역할 평가를 통해 향후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할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주민참여, 지역발전사업, 정보화마을, 인빌

Possibility of Expand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Information Network Village

Youngmin Park, Jinwan Seo

Abstract The study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INVIL) with consideration of their different participation levels. As major player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VIL itself, Central INVIL Committee and so forth have worked for the INVIL project and their importance levels of now and future were questioned and evaluat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INVIL itself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layer for now and future as wel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also important to support the sustainability of this project. For future direction of INVIL project to be successfully sustainable, the specific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discussed and recommended to reduce explicit and potential conflicts among major players.

Keywords: citizen's participatio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formation network village, INVIL

2014년 12월 5일 접수, 2014년 12월 8일 심사, 2015년 3월 20일 게재확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ympark@klid.or.kr)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jinwan@incheon.ac.kr)

I. 서론

2000년 이후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복수의 중앙부처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특성들 중 주목되는 사실은 주민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주대진 외, 2004: 304; 이한기, 2003: 163) 그 결과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박영민, 2014a: 103; 허주열 외, 2009: 46; 신중진 외, 2008: 193). 그러나 자원부족과 주민들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농산어촌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고령화, 그리고 FTA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발전을 위한 내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의 적극적 의지와 참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기존에는 지원 주체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수혜집단은 무조건 종속적 입장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수혜 대상집단 역시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행정자치부)¹⁾의 주도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²⁾

정보화마을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보격차해소,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경쟁력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발전 형태를 보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지원 보다는 마을 차원의 자구적 노력과 물적 투자에 대한 의지가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마을들은 여전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마을 외부의 운영주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 즉, 정부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스스로의 노력을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보는데 비해 마을은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등 외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상반된 행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 유발은 물론 결국 사업의 원만한

1) 정보화마을사업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행정부 당시 내용의 구상 및 설문, 인터뷰 등이 실시되었으나 현 주무처의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2) 정보화마을사업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향후 마을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밝혔고 이는 정보화마을 선정 당시 신청했던 마을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3) 매년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과가 향상되고 있고, 최근 UN전자정부포럼상(2006), UN공공행정대상(2011)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친명했던 바와 같이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이를 통한 마을의 자립운영이라는 사업추진 방향성을 토대로 예산일몰제 등의 적용을 고려하는 등 점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추진과 이를 통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마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및 운영주체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조사함으로써 이의 합리적 조정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정보화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여해 왔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영역에서의 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운영사업단 등 다양한 추진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를 주민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 간의 인식차이를 통해 향후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을 가져야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논의의 배경

1. 지역발전사업과 주민참여

지역발전은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Reese, 1997; Danson, et al., 2000; Haughton, et al., 2004).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김용웅 외, 2003: 32)으로 보기도 하고,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한 국가의 하위 공간(Sub-national) 영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간적 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쇄신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계획적인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박종화

외, 2000: 7-8). 지역발전사업은 이러한 개념 하에 특정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제 환경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된다(백성준 외, 2007). 이때의 추진주체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지만 협의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관련법, 산업입지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되거나 정부나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만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용웅 외, 2001:24-25).⁴⁾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정부단위에서 이뤄져왔으며 그 추진에 있어서도 외생적 발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단위에서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지원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지역발전사업의 일반적 방향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 시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주민의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내생적 발전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주민참여는 이러한 지역발전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의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 본연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1960년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데(문지원, 2011; 김인환 외, 2009),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계획과정에서의 참여를 중요시 했으나 점차 계획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계

4) 본 연구에서는 협의적 의미를 따르도록 한다.

5) 주민참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민참여가 있는데 주민참여는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시민참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치주권자인 일반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투입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승중·유희숙,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와 시민참여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으나(박종관, 2011: 2) 본 연구에서는 이승중·유희숙(2004)의 연구에서 정의한 주민참여의 입장을 준용한다. 이유는 정보화마을사업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이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획집행에서의 참여까지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정환용, 2001; Thomas, 1995:3-4).⁵⁾ 우선 계획과정 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중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Cunningham(1972)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Barber(1984)는 공식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박종관, 2011: 2), Perry, et al.(2001)는 의원과 관료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민행동을 주민참여로 인지하였다. 이에 반해 Alford(1969: 21)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과정으로 주민참여를 정의하였으며, Waldo(1948)는 주민참여를 공식적 행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설정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⁶⁾

이렇듯 주민참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지역사회 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의 형성·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해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일련의 행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 수동적·종속적 위치에 놓여있던 주민들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정책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투입시켜 일반주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게 만든다. 또한 책임을 공유하고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협조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사정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의사결정과 집행에 투입될 경우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활동과 성과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⁷⁾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있어서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들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자신들의 지역과 마을의 정보를 얻게 되어 농촌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농산어촌마을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지니는 기제가 된다(김혜민, 2006: 3).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발전에 대한 전문적 주민교육(Professional Education for Residents)과 주민역량을 확대(Residential Empowerment)하는 역할로 기능함과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자연스럽게 발굴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이재준 외, 2003: 40; 김혜민, 2006: 4). 아울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주고, 사업완료 후 주민에 의한 유지관리활동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양용석, 2006: 218). 즉, 지역주민들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서 행동하며, 자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마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마을의 활력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한기, 2003: 164).

2. 선행연구 고찰

주민참여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는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적 분위기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6) 이 외에도 하혜수·양기용·김용창·하혜영·문상현(1997), 이승중·유희숙(1994), 정진우(2006) 등 다양한 학자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정의하고 있다.

7) 반면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공청회 개최 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주민설명, 요구 수렴 등으로 계획이나 집행이 지연되거나,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민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시민 또는 주민들의 참여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체계가 확립되어 왔고 건국이후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군사정권 이후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관계로 주민참여 관련 연구가 이 시기부터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⁸⁾ 본 연구의 대상인 농산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도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재준 외(2003)는 농촌마을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으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이끄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마을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장단기 마을계획의 구체화,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심 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송미령 외(2004)는 주민참여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주민참여가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의 과정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소순열, 2010: 114).

양용석(2006)은 일본 사가현 코우라초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 집단,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주민 간의 의견수집과 행정과의 협의를 위한 주민조직체, 주민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원식 외(2008)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사업주체별, 추진주체별 분류 기준 및 특성 제시를 목적

으로 그동안 진행된 사업 중 49개를 분석 대상으로 사업주체 및 참여주체를 추출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그 동안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 조직의 구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인환(2009)은 농촌관광사업에서 추진주체간의 파트너십과 주민참여의 영향관계, 그리고 갈등과 주민참여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 간의 파트너십이 주민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그리고 지역주민 간 주민태도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갈등은 모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울진 외(2010)는 익산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활동에 대한 여건분석을 주민참여와 의식형태, 사업단계별 주민 참여활동을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태도와 사업참여 방향에서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활동중심이 되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성근 외(2011)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5개년 사업을 모두 완료한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참여주체 간 협력수준, 참여주체의 중심성,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주체의 협력네트워크 확충을 우선시해야 하며, 일반주민과 전문가가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농산어촌

8) 광복 이후 중앙정치의 공고화 수단으로 실시되다가(이달곤, 2006: 16)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5공화국까지 지방자치는 법에 의해 시행은 규정되었으나 구성 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제3, 5공화국),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부칙(제4공화국) 등으로 인해 1991년의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폐지상태(정일섭, 2006: 47-55)였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 부활을 알리게 되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성공적인 농산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요 추진주체 간 협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관련 사업들에 대한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선언적 혹은 당위적 제시는 있으나, 정작 주민들 스스로 관련 사업에 있어서 핵심 주체라는 사실, 그리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농산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선언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막연하게 당위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온전히 배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사업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만 주민참여를 사업의 방향성으로 추구한다면 앞에서 논의했던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주민참여를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명기하고 추진 중에 있는 농산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경우 주민들이 사업참여에 대한 인지 및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3. 정보화마을사업과 주민참여

1) 정보화마을사업의 의의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은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정보화 확산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정보화를 활용하여 온라인 공동체를 위시한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강화를 핵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가구별 PC 보급 등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온·오프라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경제적 이익을 마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마을은 2001년 24개 마을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357개 마을이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에 양질의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보화역량을 크게 증진시키는 등 정보격차해소에 이바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마을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민박, 캠핑, 체험관광 등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마을의 자립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은 UN이 추천하는 정보접근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세계 전자정부 포럼상'(2006년), 'UN공공행정 대상'(2011년)을 차례로 수상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모델로 정보화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사가현 후지초에 '후지정보마을'을 시범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2) 정보화마을사업과 주민참여의 특성

정보화마을사업은 낙후된 농산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업을 집행하기 시작한 전형적인 정부주도 사업으로, 정부는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대상 마을 역시 사업추진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사업에서 주민참여는 개별 마을들에서의 참여와 마을들의 연합회인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를 통해 참여하

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박영민, 2012: 65-68).

정보화마을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지역 마을들에 정보센터 및 인터넷망 구축, PC보급 등 정보화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기존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선정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에 주민참여 의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총 배점의 20%)(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또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명확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 역시 이 점을 제안서에 분명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후 마을의 자치조직으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시책을 구상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각 정보화마을을 대표하는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⁹⁾

셋째, 마을의 운영 활성화화를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협회 차원에서도 정보화마을의 자립과 운영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¹⁰⁾

결과적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실제적 의미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참여주체로서 인지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외생적 발전의 모습을 보였으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상기 구조 이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기반의 바람직한 마을 공동체의 형성을 또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내재적 역량을 결집시켜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박영민 외, 2014).

정보화마을사업은 주민들 간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상호협력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기적 행태는 개인의 의지에 따른 자율 또는 규칙에 의한 강제를 통해 억제되기도 한다는 사회자본의 가치는(Petersen, 2002: 60) 정보화마을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을에 속한 개인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감을 자각하여 공공선에 대한 의식을 지는 일종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교류, 참여, 협력을 도모하여 경제적 편익을 높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Newton, 1997). 정보화마을이 주로 위치한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 수준에서는 사업성고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주민상호간 신뢰가 결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판매 등에 있어서 의심, 불신 등 정서적 낭비 뿐 아니라 거래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비효율성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보화마을사업은 주민들 간 신뢰 구축을 통해 마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목표들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구

9) 심지어는 당시 행정안전부 내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때는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 임원들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정하는 양상이 나타난 적이 있을 정도로 마을의 대표자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행정안전부 ○○○주무관 인터뷰, 2008년 9월; 안전행정부 ○○○사무관 인터뷰, 2014년 10월).

10) 정보화마을의 향후 운영활성화 및 자립적 기반확보를 위하여 2014년 초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또 다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다(정보화마을중앙협회장 인터뷰, 2014년 6월).

하기 위해 주민들 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였다. 이는 지역구성원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에 기반한 규범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회자본과 개념적으로 맥을 같이하는데(박영민, 2014b; 박영민 외, 2014), 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과 문제 소지의 감소에 기여한다.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의 수준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 간의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박영민, 2014b: 272-273). 이는 정보화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성도가 저조한 마을들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¹¹⁾ 정보화마을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반증해준다.

3)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

정보화마을사업이 2001년부터 시행된 이후 도농간·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에는 정보화마을사업에 관련한 다양한 추진 및 운영주체들의 노력이 있었다(<표 1> 참조).

<표 1> 추진 및 운영주체별 역할

구분	추진 및 운영주체	주요역할
기획 관리 부분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 정보화마을 지정 및 운영 정책방향 설정 - 지방자치단체, 마을, 정보화마을중앙협회 등 협조사항 협의·조정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교육, 컨설팅, 해외 벤치마킹 등) -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 각 주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정보화마을운영평가 및 관련 연구 수행
	지방자치단체	- 지역 콘텐츠 구축,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 - 정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교육 진행으로 주민 정보이용능력 향상 - 지역행사 개최 및 자매결연 체결 지원
운영 부분	운영사업단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지원 (e-비즈니스, 홍보, 마케팅, 중앙시스템 개선·보완 등 운영·관리) - 기타 활성화 지원
마을 운영 (주민 참여) 부분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마련 - 우수 정보화마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도모 - 정보화마을 법제화 및 관련제도 개선 추진 - 정보화마을 위상 강화를 위한 대외교류 협력 추진 - 정보화마을 FESTA 개최 및 진행
	각 마을	- 정보화마을 운영 핵심 주제로 마을 특산물 구입 및 체험 프로그램 관련 문의고객 응대 - 마을 특산물 및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등록, 고객 주문확인 및 배송관리 - 마을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센터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운영평가시스템 실적 등록 및 관리

11) 정보화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관심은 마을별로 차이가 있다. 사업성도가 높은 마을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명확하고 마을주민들 역시 상품판매와 마을체험과 같이 직접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마을정비 등과 같이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위원장의 다양한 활동들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마을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성도가 저조한 마을들의 경우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정보화마을사업에 관심이 낮다. 초기에는 PC도 제공하고 정보화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그나마 사업에 참여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 또한 일부마을에서는 일부주민들의 개인주의(마을 공동고객을 개인고객으로 유도 등)로 인하여 주민들 간 다툼이 발생하여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경우도 있다(전국 13개 시도 정보화마을 담당자 인터뷰 내용 정리, 2013년 4월~7월, 2014년 4월~6월).

정보화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기획 및 관리부문, 운영부문, 그리고 마을운영부문을 구분되며, 각각의 구분별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단, 정보화마을중앙협회, 그리고 마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명시적 추진 및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자매결연기관들의 경우 마을의 상품구매, 기타 인적·물적자원 지원, 그리고 마케팅 방안 전수 등 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작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2014년 현재를 기준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문제는 향후에도 예산일몰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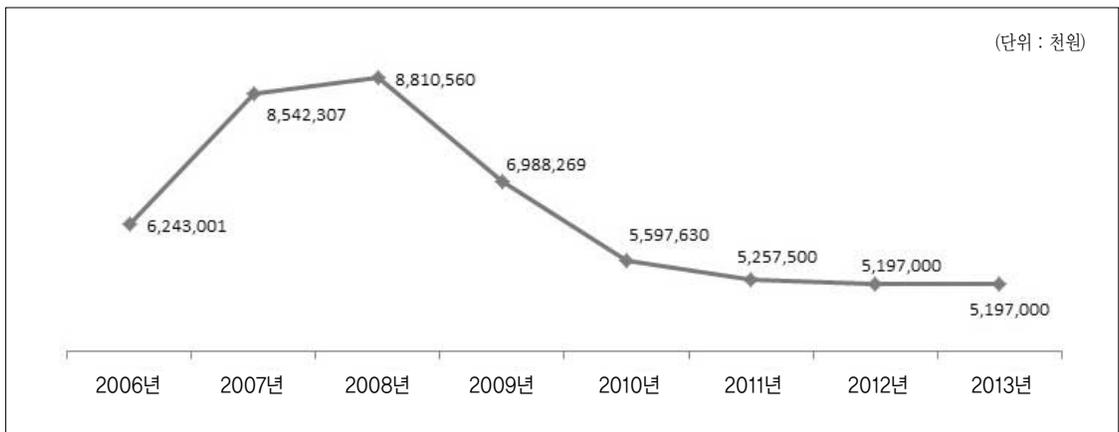
있다.

결국 전국의 정보화마을이 300개를 넘어서 있는 시점에서 향후 새로운 마을 조성은 물론 기존 마을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중앙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고 정보화마을사업의 운영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까지도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FTA, 스마트정보화 시대의 도래, 플랫폼기반의 정부의 등장 등 사업추진 환경이 변화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Ⅲ. 분석의 틀

1. 분석의 출발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마을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주민참여



출처: 행정자치부 내부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

〈그림 1〉 정보화마을사업 예산(중앙정부) 변화 추이(2006년~2013년)¹²⁾

12) 가장 많은 마을이 조성되었던 2004년(3차마을)과 2005년(4차마을) 이후에도 조성예산과 활성화 지원예산은 2008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2009년 마을조성 관련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 활성화 지원예산도 매년 줄어들게 되면서 정보화마을사업의 전체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마을단위의 운영위원회와 전국단위의 중앙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의 참여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인식(경남도민일보, 2012년 11월 20일), 정보화마을사업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영민, 2014a: 113-114)는 정보화마을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은 이미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단위의 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과(박영민, 2014a: 114-115)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립운영을 지향하는 현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마을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마을과 부진한 마을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분석의 대상: 추진 및 운영 주체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정보화마을사업 추진 및 운영주체들은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주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선행연구(박영민, 2014c: 24-31) 및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 정관 등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1) 주민참여 부문

(1) 정보화마을중앙협회

정보화마을중앙협회는 전국 357개 정보화마을들

을 회원으로 각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와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정보화마을이 지속 성장 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의 연합회이다. 협회에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사안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정보화 참여유도와 수익 창출 모델 발굴 및 지속적인 수익사업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권역별 지회

권역별 지회는 중앙협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조직으로 정식명칭은 “정보화마을중앙협회 ○○지회”이다. 즉, 권역별 지회는 시도단위의 정보화마을중앙협회로 그 목적 역시 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도별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종합하여 해당 시도/시군구와 협력을 통해 정보화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회는 회원 상호간 협력 증진과 공동사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회비 납부 독려, 지회임원 선임, 중앙협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 수행, 중앙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마을

각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사업의 대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는 즉, 수혜대상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마을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자체 조직인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15인 이내)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홈페이지 관리, 상거래를 위한 가격결정 등 마을 현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통해 자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협의·조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마을 운영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와 의결, 상호협력, 투자 등 자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¹³⁾

2) 외부지원 부문

(1)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를 돕고 있다. 특히, 중앙시스템의 구축과 정보화마을을 활성화를 위한 중앙 운영을 관리해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커뮤니티, 마케팅, 홍보 등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운영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정보화마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와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해당 시군의 정보화마을과의 역할 등을 조정해주고, 상호 연계하여 정보화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사업의 성공을 책임지는 최일선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정보화마을이 있는 산골오지, 섬마을 등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직접 파악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자체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마을 홍보물의 제작 지원, 행사 개최, 주민정보화교육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도와 시군구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는 것은 추진주체에 대한 명확히 이해를 반영하는데 다소의 난점이 있다. 시도는 소속 정보화마을들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비해 시군구의 경우 개별 마을들에 대

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위주의 활동을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조사한다.

(3) 운영사업단

정보화마을사업은 사업관리, 전략기획, 시스템운영, 고객지원 등을 위한 전문운영조직인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운영사업단은 주민교육, 홍보,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콘텐츠관리,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지원, 운영 실적 및 자료관리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커뮤니티, 인빌뉴스, 정보채널 등 기 구축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디자인 등 정보화마을 사이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자매결연기관

자매결연기관은 정보화마을사업 관련 명시적 추진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사업의 기획 및 조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역할이 언급되지도 않고 실제적인 움직임 역시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성 후 운영과정에 있어서 상당수 마을들에 지원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을상품 구매, 마케팅 방안 교육,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물적자원들의 지원을 통해 마을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¹⁴⁾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정보화마을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이 가운데 주민참여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현재 정

13) 운영위원장도 있으나 운영위원장은 집단이 아닌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역할 내에 위원장을 포함하기로 한다.

14) 정보화마을과 민간기업 등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정보화마을의 매출 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매결연기관은 정보화마을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정보화마을은 특산물 판매 매출의 상승을 가져오는 동시에, 자매결연 기관의 마을 방문 체험행사 등은 그동안 좋은 호응을 거두어 왔다.

보화마을로 조성된 357개 마을 중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하위 각 20%씩 총 140개 마을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⁵⁾

설문은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인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마을, 정보화마을중앙협회, 권역별 지회, 정보화마을운영사업단, 자매결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재와 향후의 중요성 정도를 확인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140개 마을의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1일~10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⁶⁾ 설문지의 배부와 취합은 정보화마을 전용 메신저인 인빌메신저¹⁸⁾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100부가 회수(회수율 72%) 되었는데 상하위권 각 50개 마을이 응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일부 문항별 무응답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분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대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주체별 중요성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응답마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20.0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우수마을과 부진마을을 각 6개씩 총 12개 마을의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2014년 4월16일~6월1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해당마을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상기 설문 내용의 보완을 위해 운영주체별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¹⁹⁾

IV. 추진 및 운영주체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1. 현재 및 향후 추진 및 운영주체별 중요성

마을 운영위원장들에게 정보화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향후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추진 및 운영주체별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현재의 경우 ‘마을’, ‘시군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도’, ‘사업단’, ‘정보화중앙협회’, ‘행정자치부’, ‘지회’, ‘자매결연기관’의 순으로 중요하게 그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중요성 예측 역시 현재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와 향후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행정자치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미래에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을 주민들은 정보화마을사업의 향후 지속적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마을의 운영수준이 추진 및 운영주체들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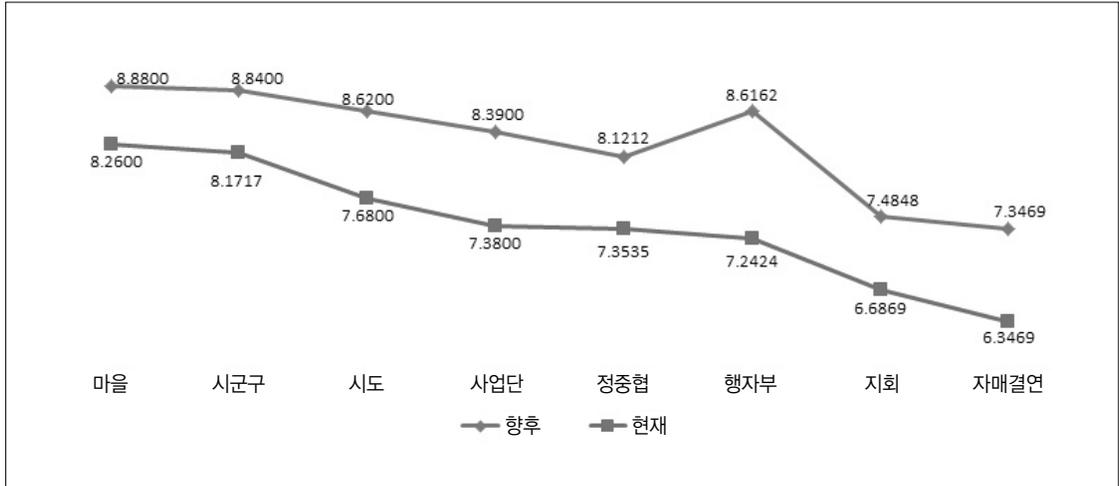
15) 매년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정정보개발원에서 정보화마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나타난 마을별 운영수준을 토대로 연구대상 범위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목적 확인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박영민, 서진환, 2014)에서 사회자본이 높은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비교대상으로 우수마을과 부진마을의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고려되었다.

16) 운영위원장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보화마을 전체 회원수가 30만명이 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마을의 현황과 실정,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을의 대표자로서 보다 적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모든 설문문항에서 사용한 척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필요하다’ 까지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8) 정보화마을 간에 이용하는 쪽지기반의 메신저로써 쪽지 보내기, 채팅형식의 대화기능을 제공한다.

19) 인터뷰 대상 마을은 매년 실시되는 정보화마을운영평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상위 각 20%에 속하고 설문에 응답한 마을 중 운영위원장과 직접 인터뷰가 가능한 마을을 각 5개씩 총 10개 마을을 선정하였다(대상마을: 우수: 강원 양양 ○○마을, 강원 홍천 ○○마을, 전북 임실 ○○○마을, 전남 광양 ○○○마을, 경북 김천 ○○○○마을; 부진: 경기 가평 ○○○○마을, 경기 여주 ○○마을, 전북 무주 ○○○마을, 경북 고령 ○○○○마을, 경남 양산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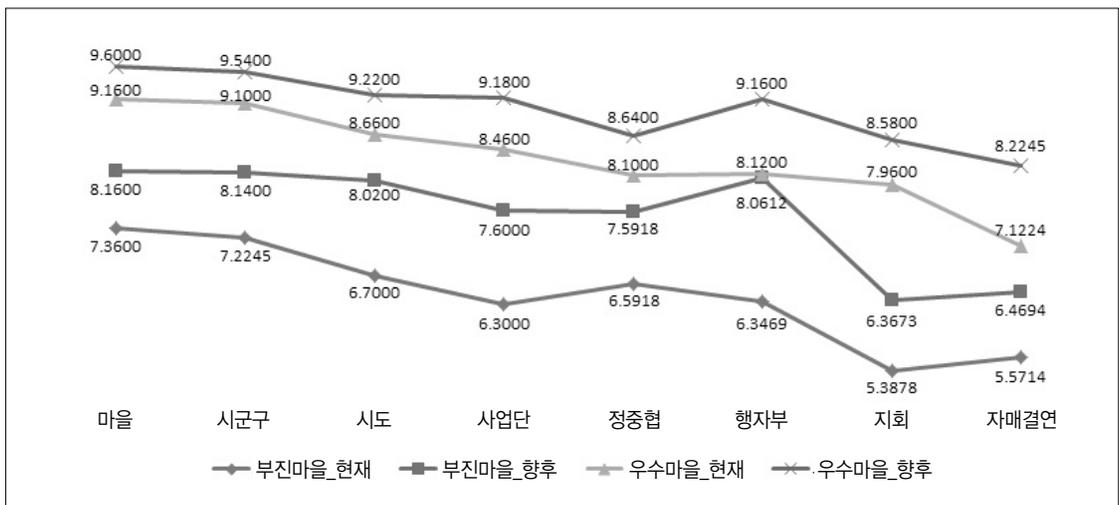


〈그림 2〉 현재 및 향후 추진 및 운영주체별 중요성 인식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과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수마을과 부진마을 구분 없이 유사한 패턴으로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우수마을과 부진마을 모두 ‘마을’의 역할이 현재와 미래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수마을의 경우 ‘시군구’, ‘시도’,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순으로 역할의 중요

성을 인식하는 반면, 부진마을의 경우 향후 ‘행정자치부’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우수마을이 부진마을 보다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현재와 미래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추진 및 운영주체 모두가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운영수준 차원에서 본 추진 및 운영주체별 중요성

〈표 2〉 마을운영 수준별 추진 및 운영주체별 중요성 인식

구분	전체		운영수준별					
	N	평균	운영수준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현재_행자부	99	7.2424	우수마을	50	8.1200	1.90209	4.112	.000
			부진마을	49	6.3469	2.36776		
향후_행자부	99	8.6162	우수마을	50	9.1600	1.21823	3.204	.002
			부진마을	49	8.0612	2.07573		
현재_시도	100	7.6800	우수마을	50	8.6600	1.49298	5.426	.000
			부진마을	50	6.7000	2.07266		
향후_시도	100	8.6200	우수마을	50	9.2200	1.55563	3.491	.001
			부진마을	50	8.0200	1.86799		
현재_시군구	99	8.1717	우수마을	50	9.1000	1.29756	5.779	.000
			부진마을	49	7.2245	1.87378		
향후_시군구	100	8.8400	우수마을	50	9.5400	.93044	4.605	.000
			부진마을	50	8.1400	1.93791		
현재_마을	100	8.2600	우수마을	50	9.1600	1.13137	5.176	.000
			부진마을	50	7.3600	2.18305		
향후_마을	100	8.8800	우수마을	50	9.6000	.80812	4.381	.000
			부진마을	50	8.1600	2.17931		
현재_정중협	99	7.3535	우수마을	50	8.1000	1.95093	3.871	.000
			부진마을	49	6.5918	1.92482		
향후_정중협	99	8.1212	우수마을	50	8.6400	2.09723	2.450	.016
			부진마을	49	7.5918	2.15946		
현재_지회	99	6.6869	우수마을	50	7.9600	2.11853	5.396	.000
			부진마을	49	5.3878	2.60461		
향후_지회	99	7.4848	우수마을	50	8.5800	1.95970	4.626	.000
			부진마을	49	6.3673	2.72866		
현재_사업단	100	7.3800	우수마을	50	8.4600	1.60624	5.522	.000
			부진마을	50	6.3000	2.25198		
향후_사업단	100	8.3900	우수마을	50	9.1800	1.24031	4.270	.000
			부진마을	50	7.6000	2.30350		
현재_자매결연기관	98	6.3469	우수마을	49	7.1224	2.40341	3.245	.002
			부진마을	49	5.5714	2.32737		
향후_자매결연기관	98	7.3469	우수마을	49	8.2245	2.07430	3.957	.000
			부진마을	49	6.4694	2.31032		

2. 추진 및 운영주체 별 역할의 중요성 분석

1) 주민참여 부문

주민참여 부문 중 ‘마을’의 경우 정보화마을 운영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화마을사업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되고 있다고 보여진

다. 이런 결과는 향후 정부 단위의 지원 축소에서 야기할 위기상황의 극복과 자립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런 마을주민들의 인식이 잘 나타난다.

예전 사업들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마을이나 주민들은 그에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정보화마을사업은 사업 선정부터 마을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상당수 정보화마을들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화마을사업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속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강원 양양 〇〇마을 운영위원장).

이러한 인식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통해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은 발전의 대상이 '마을'이라는 사실, 발전의 주체 또한 '마을'이 되어야 한다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는 성과가 우수한 마을은 물론 부진한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권역별 지회'의 경우 역할의 중요성 자체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사업이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나, '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권역별 지회'의 경우 마을단위가 아닌 마을을 지원하는 외부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우수마을에서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권역별 지회'의 중요성 인식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부진마을의 경우 '권역별 지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수마을의 경우 '정보화마

을중앙협회'와 '권역별 지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별다른 차이 없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진마을의 경우 낮은 참여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정보화마을중앙협회'에 비해 '권역별 지회'의 역할이 충분치 못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회'의 경우 권역별(9개)로 존재하며, 지회장은 정보화마을중앙협회의 이사로서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사업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마을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마을들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보화마을중앙협회와 권역별 지회가 주민참여의 확대 및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중앙협회나 권역별 지회의 경우 마을운영위원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마을'이라는 단위의 활동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마을에 업무지시처럼 수시로 마을에 업무와 역할을 부여하는 등 마을보다 상위의 위치에서 마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전남 광양 〇〇마을 위원장).

지회가 있기는 하나 지회차원의 행사나 활동은 거의 없다. 중앙협회처럼 지회의 조직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회장이 속한 마을에서 지회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지회라는 단체 자체가 가시적인 것도 아니다. 솔직히 지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경남 양산 〇〇〇〇 마을 위원장).

2. 외부지원 부문

외부지원 부문에서 마을주민들은 '시군구'의 역할

을 ‘마을’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군구’의 경우 ‘마을’과 물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곳이며,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유무형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마을이 ‘시군구’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시군구’보다는 다소 낮지만 ‘시도’ 역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마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영민, 2014a)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의 자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과 외부의 지원, 특히 시도/시군구의 지원에 의존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다만, 성과가 실제로 저조한 마을과 성과가 좋은 마을에서는 그 평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마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일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운영주체는 시군구이다. 물론 행정자치부가 사업운영 및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마을에서 피부로 느끼지도 못할뿐더러 실제적으로 마을과 그다지 관계없는 행정자치부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마을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시설 소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지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에는 이러한 건의를 할 기회가 드물다. 반면 시군구는 가까이 있고 또한 담당자들의 마을 방문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의를 하기가 쉽다. 시도 역시 시군구보다는 덜하지만 담당자들에게 지원을 건의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전남 광양 〇〇〇마을 위원장, 전북 임실 〇〇〇마을 위원장).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은 현재의 경우 ‘시군구’와 ‘시도’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마을의 자립운영을 강조해 오면서 <표 2>와 같이 매년 지원예산을 축소해 왔으며, ‘시도’와 ‘시군구’와 달리 마을주민과 직접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행정자치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마을’, ‘시군구’, ‘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점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주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와 달리, 여전히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여 자립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역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앞으로도 마을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을의 발전은 주민들의 노력도 있으나 정부 지원의 역할도 크다. 관리자만 해도 사실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인건비)은 크지는 않지만 여하튼 중앙과 지방의 도움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을 끊고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면 관리자 유지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자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마을 발전을 실질적으로 요원해 지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는 마을은 많지 않다(강원 홍천 〇〇마을 위원장, 전북 임실 〇〇〇마을 위원장).

외부지원 부문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마을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우수마을에서 외부 지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들에서

주민참여를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일반화되어 있는 연구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재준·이상문, 2003; 송미령·성주인, 2004; 이성근·김태구·이관률, 2011). 이런 주장은 마을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성과가 높은 마을들은 활발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원이 강화될 경우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지금까지 정보화마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별 차별적 지원이 아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²⁰⁾ 그럼에도 마을별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결국 마을별 동일한 지원 수준을 마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지원 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과가 저조한 마을보다 성과가 우수한 마을이 외부 지원보다 마을의 자발성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이를 더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마을들이 오히려 지원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성 못지않게 외부의 지원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우수마을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험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런 관점에서 마을 주민들의 노력 이외에 마을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위원장이나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정보화마을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만으로 성과의 지속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강원 홍천 〇〇마을 위원장).

부진마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내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진마을의 경우는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수마을보다 외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려는 의지가 높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단'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 상당부분이 마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단'이 마을 운영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조직이기는 하나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안전행정부의 행정업무 처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을 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행정자치부를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단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일상 업무와 관련해 사업단과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비해 쉽게 대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유선상에 국한된 것으로 직접적인 교류는 많지 않다.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거나 FESTA 등 행사장에서는 간혹 보지만 이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20) 물론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급 등에 있어서 국비의 일부 차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지방비로 보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다.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뭔가를 확인하거나 요청하면 사업단 과업 범위가 아니라 답변이 오거나 때로는 행정 업무가 많아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사업단은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경기 가평 0000 마을 위원장, 경북 고령 0000마을 위원장).

끝으로 '자매결연기관'의 경우 타 추진 및 운영주체들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자매결연기관'의 경우 마을 일손 돕기, 특산품 구매, 장비 지원 등 마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지만, 대부분 최초 자매결연 이후 마을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등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매결연기관은 마을을 방문하여 농사일을 돕는다거나 체험, 특산물 구입 등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 마을의 경우일 뿐 대부분의 마을들은 초기 외에는 거의 교류를 갖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경기 여주 0000마을 위원장).

3. 종합정리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추진 및 운영주체들에 대해 현재의 모습보다는 향후에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조성된 지 13년이 경과된 현 상황에서도 마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에 못지않게 외부 지원(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정보화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마을 스스로 노력과 함께 외부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측면을 말해준다. 대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부진마을의 경우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우수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들의 인식 수준은 완전한 자립의 의지가 약하고 지속적 지원에 의존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피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수마을) 정보화마을을 통해 마을의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마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발전을 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을 수탁받은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운영사업단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유무형의 도움을 주고 있는 자매결연기관들의 지속적 방문을 통한 지원 역시 그러하다(경북 김천 0000마을 위원장).

(부진마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을주민들 모두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급, 마을운영비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화마을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다(전북 무주 000마을 위원장, 경북 고령 00마을 위원장).

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운영위원장들의 각 추진 및 운영주체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마을 주민과 운영주체들 간의 연계에서 물리적 거리와 유사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듯하다(〈그림 4〉 참조). 이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보면, 첫째, 성과가 우수한 마을과 부진한 마을들 모두 운영주체 중 스스로 '마을'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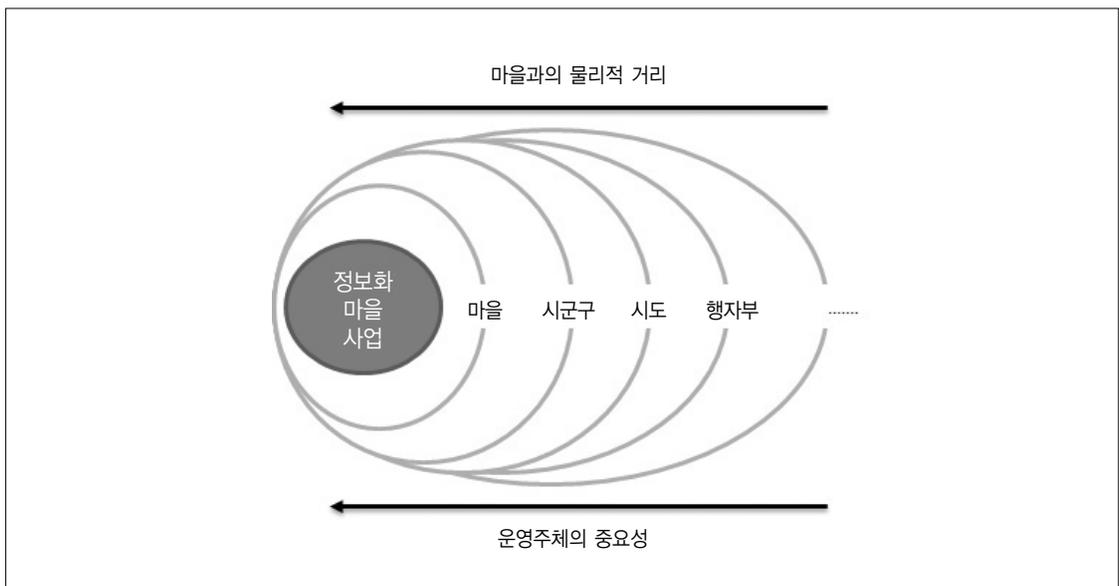
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성과 차이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마을 주민들은 외부지원에 있어서 '시군구'와 '시도'의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군구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와는 다르게 '시도', '시군구'는 점차 지원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박영민, 2014a: 110-112)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활성화의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V.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중앙협회, 권역별 지회를 주민참여 부문으로,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운영사업단, 자매결연기관을 외부지원 부문으로 나누고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각 주체들의 현재와 향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마을 주민들은 현재와 향후 모두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추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 등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경우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군구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그림 4〉 운영주체별 중요성과 물리적 거리의 관계

하고 기대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관계 또한 검토 대상이 될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운영주체 간의 갈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이 연구 결과는 마을과 중앙정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첫째, 마을별 수준에 적합한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보화마을들은 운영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수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마을별 역량 및 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교육, 재정 등의 획일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마을별 제반 환경 및 역량수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마을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는 사업의 초기에 약속한 대로 마을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되, 마을과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정보화마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의 역할 증대를 통해 주민참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별 수준에 적합한 전략수립은 마을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을을 선도하고 마을들의 역량을 응집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정보화마을

중앙협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아직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¹⁾

끝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과 담보는 물론 마을발전 자체가 요원하다. 마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현재대로 가져가겠다는 이 사업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할 역할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마을사업은 기존의 지역발전사업에서 강조되었던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화마을사업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용웅·차미숙 (2001). 「유럽의 지역개발 성공사례와 동향」. 서울: 한국문화정책연구원.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3). 「지역발전론」. 서울: 한울.
- 김인환 (2009). 「농촌관광사업 추진주체의 파트너십 및 갈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환·이용진 (2009). “농촌관광사업에서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십 및 갈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5):251-273.

21) 이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 향후 지원 중단에 대한 사전공지를 통해 지원기간을 한정하고 기간 내에 자립을 이루기 위한 협회와 마을 차원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그동안은 일방적 수혜의 입장으로 책임감이 떨어져 무조건적인 지원 요구가 강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김혜민 (2006).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전개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산청 남사 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2(3): 1-11.
- 문지원 (2011). “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연구.” 「국토계획」, 46(6):5-19.
- 박영민 (2012). 「정부정책의 사회자본 형성기능과 성과에 대한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민 (2014a).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현대사회와 행정」, 24(1): 97-118.
- 박영민 (2014b). “농촌지역 사회자본 형성과 정부정책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8(2): 267-292.
- 박영민 (2014c). 「정보화마을 13년사」. 서울: 안전행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박영민·서진완 (2014). “사회자본과 정보화마을사업 운영성과의 관계.”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3): 35-60.
- 박울진·김태호 (2010).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3): 1-9.
- 박종관 (2011).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공공행정연구」, 12(2): 1-18.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00). 「지역개발론」. 서울: 박영사.
- 백성준·류장수 (2007).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소순열 (2010). “농촌마을 개발과 주민참여.” 「지역사회연구」, 18(2): 113-131.
- 송미령·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중진·송승현 (2008).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약속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0): 193-202.
- 양용석 (2006). “농촌정비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의 역할: 일본 사가현 코우라초의 어메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41(3): 217-232.
- 이달곤 (2004). 「지방정부론」. 서울: 박영사.
- 이성근·김태구·이관률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주체간 협력수준과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대한국토」, 46(4):297-309.
- 이승중·유희숙 편역 (1994).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재준·이상문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38(3): 39-55.
- 이한기 (2003).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농촌여성과 노인의 역할.”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2): 163-183.
- 전원식·김남두·원희연 (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체 및 추진주체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4):131-148.
- 정일섭 (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정진우 (2006).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 탐색.” 「한국지역정보학회지」, 9(1):59-77.
- 정환용 (2001). 「계획이론」. 서울: 박영사.
- 주대진·김진모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2): 318-319.
- 하정봉·길종백 (2013).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도, 이념 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249-274.
- 하혜수·양기용·김용창·하혜영·문상현 (1997).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허주열·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45-70.
- 허윤경·황근영·소갑수·이연숙 (2008).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주민참여기법 사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하계학술발표집, 8(1)
-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 정관
- 경남도민일보 (2012). “기रो에 선 정보화마을.” 11월 20일.
- Alford, R.(1969).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New York: Rand McNally and Co.
- Barber, B.(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unningham, J.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 Danson, M. H. & Helkier, G. C. (2000) *Regional Governance, Institution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anson, M. H. Helkier, G. Cameron (eds.) *Governance, Institutional Change and Regional*

- Development, Ashgate, Eldershot, England.
- Houghton, G. & Counsell, D. (2004). *Regions, Spatial strateg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and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London and Seaford.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Perry, J. & Katula, M. (2001). "Does Service Affect Citizenship?" *Administration and Society*, 33(3): 330-365.
- Petersen, Dana M. (2002). "The Potential of Social Capital Measures in the Evaluation of Comprehensive Community-Based Health Initiatives."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3(1): 55-64.
- Reese, L. A. (1997).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ew York: G
- Thomas, J. C. (1995).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 Waldo, D. (1948). *The Administrative State*, New York: Ronald Press.